

# 2-3

## 산불

한눈에 보는 안전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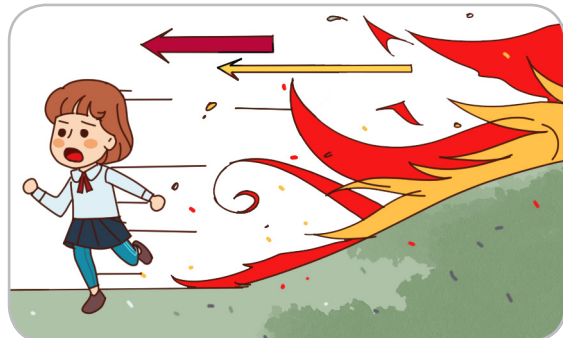


“산불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요.



근처에 산불이 났을 경우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요.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서 이동해요.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교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옷이나 양말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해요.





## 1

## 산불의 정의

## 산불

- ▶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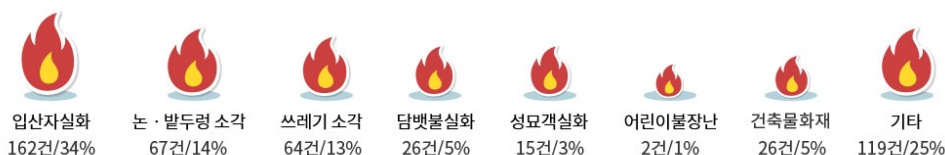
구분	발령기준
관심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전국의(지역 내)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전국의(지역 내)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전국의(지역 내)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불위험지수: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의해 산정되고 산림청장에 의해 공표됨(「산림보호법」 제31조 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8)

\*\* 대형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 ▶ 행정구역별 산불위험지수(0~100) 및 산불경보 발령(관심~심각) 정보는 산림청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http://forestfire.nifos.go.kr/>)

## 산불의 발생 원인 및 계절별 발생 현황



10년 평균 (2012년~2021년)-481건, 100%



10년 평균 (2012년~2021년)

※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산림보호>산불>산불정보>산불의 원인 및 영향

## 2

## 학교조치사항



### 1단계 예방·대비 (산불경보 관심/주의 단계)

#### 조치 사항

####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 ☑ 교직원 비상 연락망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망 점검·확인  
※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산림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 ☑ 학교시설 점검
  - 소화기/소화전, 방화문 등
  - 전기 및 가스시설, 폭발·인화성 물질(산불이 옮겨붙어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 창문 및 출입문 밀폐여부, 공기청정기 등(산불 연기에 의한 피해 방지)
- ☑ 산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교육



### 2단계 지역 내 산불 발생 (산불경보 경계/ 심각 단계)

#### 조치 사항

- ☑ 예방·대비 단계의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활동 강화

#### [상황주시 및 신고]

- ☑ 산불위험등급 상시 확인(산불조심기간: 2~5월, 11~12월)
- ☑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
  - 학교명, 주소, 화재 진행 상태, 피해 현황 등

#### [상황 대응활동 및 보고]

- ☑ 산불이 학교 근처로 확산한 경우
  - 전교생에게 대피 지시(교내 방송 활용)
  - 대피경로 안전확보
  - 대피 전/후 인원 파악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구조대 인계
  - 보호자에게 연락(후 인계), 학생들의 안정 유지
- ☑ 산불이 학교 근처로 확산하지 않았지만, 산불로 인한 연기가 학교 근처로 확산한 경우
  -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공기 청정기를 가동한 채 실내에 대기(호흡기 질환자 특별관리)
  - 산불 확산 상황 상시 확인 및 대피 준비
- ☑ 안전확보 후 교육(지원)청 보고



### 3단계 후속 조치



#### [학사운영 조정여부 검토]

-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 교육시설물 피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학교 시설 활용
  - 2부제 수업실시 등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 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휴교 및 휴업 등 결정(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결정 포함): 학부모/학생 안내 및 교육(지원)청 보고

#### [시설복구 및 예방대책 수립]

- ☑️ 학교 피해시설 응급복구
- ☑️ 시설물 피해원인 등 조사·분석 후 유사사고 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



## 3

## 학생행동요령

구분	학생행동요령
등교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의 산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li> <li>• 지역 내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문자, 홈페이지, 교무실 전화 등)한다.</li> </ul>
등·하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한다.</li> <li>• 근처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고,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li> <li>•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 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li> </ul>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피하기 전] 산불 연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채 실내에 머무른다.</li> <li>• [대피 시] 선생님의 통제에 따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젖은 수건이나 옷 등으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춘다.</li> </ul> </li> <li>•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교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옷이나 양말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한다.</li> </ul>
가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등을 통해 산불 상황에 대해 파악한다.</li> <li>•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을 제거한다.</li> <li>•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li> </ul>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한다.



근처에 산불이 났을 경우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서 이동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교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옷이나 양말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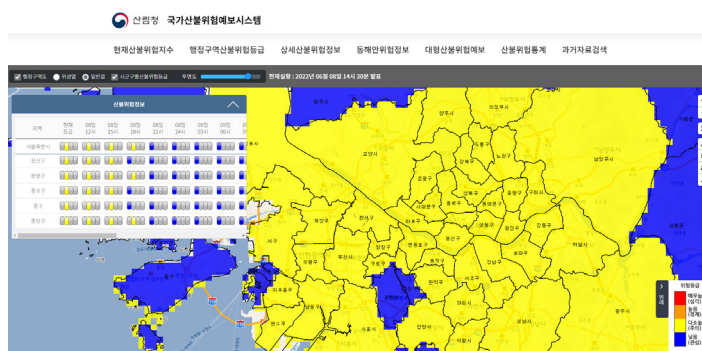
## 4

## 참고사항

## 산림청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 ▶ 전국 각 지역별 지형조건, 산림의 상황과 기상청 예보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예측하여 예보하는 서비스(<http://forestfire.nifos.go.kr/>)
- ▶ 실시간 산불위험지수, 행정구역산불위험등급, 산불위험통계 등 조회 가능

〈 산림청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조회 화면 〉



##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등을 하지 않는다.
-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않는다.

## 산불 연기로 인한 피해 및 대응 요령

- 산불 연기에 노출되면 눈 따가움, 콧물, 기침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천식, 협심증 등 기저질환의 악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
  - 민감/취약군에는 심장/폐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아동·청소년(만 18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포함
  - 천식,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은 특히 산불 연기 노출에 취약할 수 있음
- 산불 연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 실외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 통학 시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연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학 방법 권장
  - 야외 체육활동 등을 취소
- 산불 연기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실내외 청소, 환기구 점검 및 청소 필요